대입정보활용하기 1

2022학년도 수능 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및 EBS연계 대상 교재

대입정보활용하기 2

[어디가TV] 2022학년도 수험생 특집,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약학계열 전형의 이해

연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Tel.02-6919-3855
Copyright 2015. KCUE all rights reserved.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일정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일정

구분			내용
수시 모집	원서접수		2022. 09. 13.(화) ~ 17.(토)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2. 09. 18.(일) ~ 12. 14.(수)(88일)
	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까지
	합격자 등록		2022. 12. 16.(금) ~ 19.(월)(4일)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2. 12. 26.(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2. 12. 27.(화)
정시 모집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01. 02.(월)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3. 01. 05.(목) ~ 12.(목)(8일)
		나군	2023. 01. 13.(금) ~ 20.(금)(8일)
		다군	2023. 01. 25.(수) ~ 02. 01.(수)(8일)
	합격자 발표		2023. 02. 06.(월)까지
	합격자 등록		2023. 02. 07.(화) ~ 09.(목)(3일)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3. 02. 16.(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3. 02. 17.(금)
추가 모집	원서접수&전형일&합격자 발표		2023. 02. 20.(월) ~ 28.(화) ※ 합격통보마감: 2023. 02. 28.(화) 18: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등록 기간		2023. 02. 28.(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①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② 고른기회 특별전형 정원내 선발 비율 증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서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함에 따라, 전국 회원대학(198개)의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원칙을 준수하고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대학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교협은 수립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발표하였다.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정시 모집인원 증가, 비수도권 수시모집 모집인원 증가

◆ 전체 모집인원은 349,124명으로 2022학년도보다 2,571명 증가

- 2021학년도 347,447명 → 2022학년도 346,553명(-894명)
- 2022학년도 346,553명 → 2023학년도 349,124명(+2,571명)

◆ 수시모집에서 전년대비 선발 비율 증가

-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49,124명 중 78.0%인 272,442명 선발
- 전년대비 수시모집 10,064명(+2.3%p) 모집인원 증가(※ 전년대비 정시모집 7,493명(-2.3%p) 모집인원 감소)

(단위: 명), 21.4.26.(월) 기준

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증감	
				수시	정시
2023학년도	272,442 (78.0%)	76,682 (22.0%)	349,124 (100.0%)	10,064 (2.3%p)	-7,493 (-2.3%p)
2022학년도	262,378 (75.7%)	84,175 (24.3%)	346,553 (100.0%)	-4,996 (-1.3%p)	4,102 (1.3%p)
2021학년도	267,374 (77.0%)	80,073 (23.0%)	347,447 (100.0%)	-1,402 (-0.3%p)	983 (0.3%p)

※ 증감에서 구성비의 증감은 반올림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하 표에서 동일)

◆ 권역별 모집인원

- 수도권 정시모집 모집인원(825명) 증가
- 비수도권 수시모집 모집인원(8,669명) 및 선발비율(+3.9%p) 증가

(단위: 명), 21.4.26.(월) 기준

구분	권역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증감	
					수시	정시
2023 학년도	수도권	85,220(64.7%)	46,562(35.3%)	131,782	1,395 (-0.0%p)	825 (0.0%p)
	비수도권	187,222(86.1%)	30,120(13.9%)	217,342	8,669 (3.9%p)	-8,318 (-3.9%p)
	합계	272,442(78.0%)	76,682(22.0%)	349,124	10,064 (2.3%p)	-7,493 (-2.3%p)
2022 학년도	수도권	83,825(64.7%)	45,737(35.3%)	129,562	-6,443 (-4.8%p)	6,153 (4.8%p)
	비수도권	178,553(82.3%)	38,438(17.7%)	216,991	1,447 (0.9%p)	-2,051 (-0.9%p)
	합계	262,378(75.7%)	84,175(24.3%)	346,553	-4,996 (-1.2%p)	4,102 (1.2%p)

2.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기조 유지

- 수시모집에서 235,854명(86.6%)을 학생부위주(교과, 종합)로 선발
- 정시모집에서 69,911명(91.2%)을 수능위주로 선발
- 수시모집에서 전년대비 비수도권 학생부위주(교과)는 5,261명(-0.3%p), 학생부위주(종합)은 1,768명(-0.1%p) 증가
- 정시모집에서 전년대비 수도권 수능위주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1,361명, +1.3%p) 소폭 증가

(단위: 명), 21.4.26.(월) 기준

전형유형	2023학년도(A)	2022학년도(B)	증감(C)=(A)-(B)
학생부위주(교과)	154,716(44.3%)	148,707(42.9%)	6,009(1.4%p)
학생부위주(종합)	81,703(23.4%)	79,850(23.0%)	1,853(0.4%p)
논술위주	11,016(3.2%)	11,069(3.2%)	-53(-0.0%p)
수능위주	69,911(20.0%)	75,978(21.9%)	-6,067(-1.9%p)

실기/실적위주	27,164(7.8%)	26,287(7.6%)	877(0.2%p)
기타	4,614(1.3%)	4,662(1.3%)	-48(-0.0%p)
합계	349,124(100.0%)	346,553(100.0%)	2,571

모집 시기	전형유형	모집인원		증감(C)=(A)-(B)
		2023학년도(A)	2022학년도(B)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54,464(56.7%)	148,506(56.6%)	5,958(0.1%p)
	학생부위주(종합)	81,390(29.9%)	79,503(30.3%)	1,887(-0.4%p)
	논술위주	11,016(4.0%)	11,069(4.2%)	-53(-0.2%p)
	실기/실적위주	21,014(7.7%)	18,817(7.2%)	2,197(0.5%p)
	기타	4,558(1.7%)	4,483(1.7%)	75(-0.0%p)
수시 소계		272,442(100.0%)	262,378(100.0%)	10,064
정시	수능위주	69,911(91.2%)	75,978(90.3%)	-6,067(0.9%p)
	실기/실적위주	6,150(8.0%)	7,470(8.9%)	-1,320(-0.9%p)
	학생부위주(교과)	252(0.3%)	201(0.2%)	51(0.1%p)
	학생부위주(종합)	313(0.4%)	347(0.4%)	-34(-0.0%p)
	기타	56(0.1%)	179(0.2%)	-123(-0.1%p)
정시 소계		76,682(100.0%)	84,175(100.0%)	-7,493
총합계		349,124	346,553	2,571

※ 전형유형별 선발비율은 모집시기별 인원 대비 전형유형별 선발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단위: 명), 21.4.26.(월) 기준

모집 시기	권역	전형유형	2023학년도(A)	2022학년도(B)	증감(C)=(A)-(B)
수시	수도권	학생부위주(교과)	27,670(32.5%)	26,973(32.2%)	697(0.3%p)
		학생부위주(종합)	38,787(45.5%)	38,668(46.1%)	119(-0.6%p)
		논술위주	9,133(10.7%)	9,297(11.1%)	-164(-0.4%p)
		실기/실적위주	7,428(8.7%)	6,690(8.0%)	738(0.7%p)
		기타	2,202(2.6%)	2,197(2.6%)	5(-0.0%p)
	수도권 소계		85,220(100.0%)	83,825(100.0%)	1,395
		학생부위주(교과)	126,794(67.7%)	121,533(68.1%)	5,261(-0.3%p)

	비 수도권	학생부위주(종합)	42,603(22.8%)	40,835(22.9%)	1,768(-0.1%p)
		논술위주	1,883(1.0%)	1,772(1.0%)	111(0.0%p)
		실기/실적위주	13,586(7.3%)	12,127(6.8%)	1,459(0.5%p)
		기타	2,356(1.3%)	2,286(1.3%)	70(-0.0%p)
	비수도권 소계		187,222(100.0%)	178,553(100.0%)	8,669
수시 소계			272,442	262,378	10,064
정시	수도권	수능위주	43,225(92.8%)	41,864(91.5%)	1,361(1.3%p)
		실기/실적위주	3,188(6.8%)	3,514(7.7%)	-326(-0.8%p)
		학생부위주(교과)	20(0.0%)	45(0.1%)	-25(-0.1%p)
		학생부위주(종합)	119(0.3%)	150(0.3%)	-31(-0.1%p)
		기타	10(0.0%)	164(0.4%)	-154(-0.3%p)
	수도권 소계		46,562(100.0%)	45,737(100.0%)	825
	비 수도권	수능위주	26,686(88.6%)	34,114(88.8%)	-7,428(-0.2%p)
		실기/실적위주	2,962(9.8%)	3,956(10.3%)	-994(-0.5%p)
		학생부위주(교과)	232(0.8%)	156(0.4%)	76(0.4%p)
		학생부위주(종합)	194(0.6%)	197(0.5%)	-3(0.1%p)
		기타	46(0.2%)	15(0.0%)	31(0.1%p)
	비수도권 소계		30,120(100.0%)	38,438(100.0%)	-8,318
	정시소계		76,682	84,175	-7,493
합계			349,124	346,553	2,571

3. 고른기회 특별전형[1] 정원내 선발비율 증가

◆ 균등한 고등교육 제공을 위하여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학이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함

- 회원대학 모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선발 비율 증가
- 21학년도 47,606명 → 22학년도 53,546명(+1.7%p) → 23학년도 55,279명(+0.4%p)

(단위: 명), 21.4.26.(월) 기준

구분	2023 학년도(A)	2022 학년도(B)	2021 학년도(C)	2023 학년도 증감(D)	2022 학년도 증감(E)
정원내	31,027 (8.9%)	29,103 (8.4%)	23,344 (6.7%)	1,924 (0.5%p)	5,759 (1.7%p)
정원외	24,252 (6.9%)	24,443 (7.1%)	24,262 (7.0%)	-191 (-0.1%p)	181 (0.1%p)
합계	55,279 (15.8%)	53,546 (15.5%)	47,606 (13.7%)	1,733 (0.4%p)	5,940 (1.7%p)

※ 괄호안 비율은 전체 모집인원 대비 고른기회 특별전형 선발인원 비율

◆ 지역인재 특별전형

- 지역인재 특별전형 운영 대학 및 모집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
- 21학년도 16,521명 → 22학년도 20,783명(+1.2%p) → 23학년도 → 21,235명(+0.1%p)

(단위: 명), 21.4.26.(월) 기준

구분	2023 학년도(A)	2022 학년도(B)	2021 학년도(C)	2023 학년도 증감(D)	2022 학년도 증감(E)
대학수	93개교	92개교	86개교	1개교	6개교
모집인원	21,235 (6.1%)	20,783 (6.0%)	16,521 (4.8%)	452 (0.1%p)	4,262 (1.2%p)

※ 괄호안 비율은 전체 모집인원 대비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인원 비율

4. 2015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따른 대학별 수능 선택과목 지정 현황

◆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의 수능체제 개편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 지정

- 수능위주/일반전형/정원내 입력자료 기준
- 국어영역에서 모든 대학이 선택과목 구분 없이 1개과목 반영
- 수학영역에서 대다수 대학이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1개과목 반영(미적분, 기하 중 1개과목 반영대학 약 26%)
- 탐구영역에서 대다수 대학이 과목 구분없이 사회, 과학탐구(직업탐구) 반영

21.4.26.(월) 기준

구분	선택과목	2023학년도(A)	2022학년도(B)	증감(C)=(A)-(B)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선택	183개교	185개교	-2개교
수학영역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선택	175개교	177개교	-2개교
	미적분, 기하 중 선택	58개교	55개교	3개교
	확률과 통계 선택	3개교	3개교	
탐구영역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 중 선택	104개교	107개교	-3개교
	탐구영역(사회, 과학) 중 선택	96개교	92개교	4개교
	탐구영역(과학) 선택	62개교	61개교	1개교
	탐구영역(사회) 선택	2개교	2개교	

※ 수능 영역별 선택과목은 선발 모집단위에 따라 대학수가 중복 될 수 있음

□ 대교협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www.adiga.kr)에 7월 중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고른기회 특별전형*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만학도, 지역인재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만학도, 지역인재

2022학년도 수능 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및 EBS연계 대상 교재

2022학년도 수능 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문항 유형 및 배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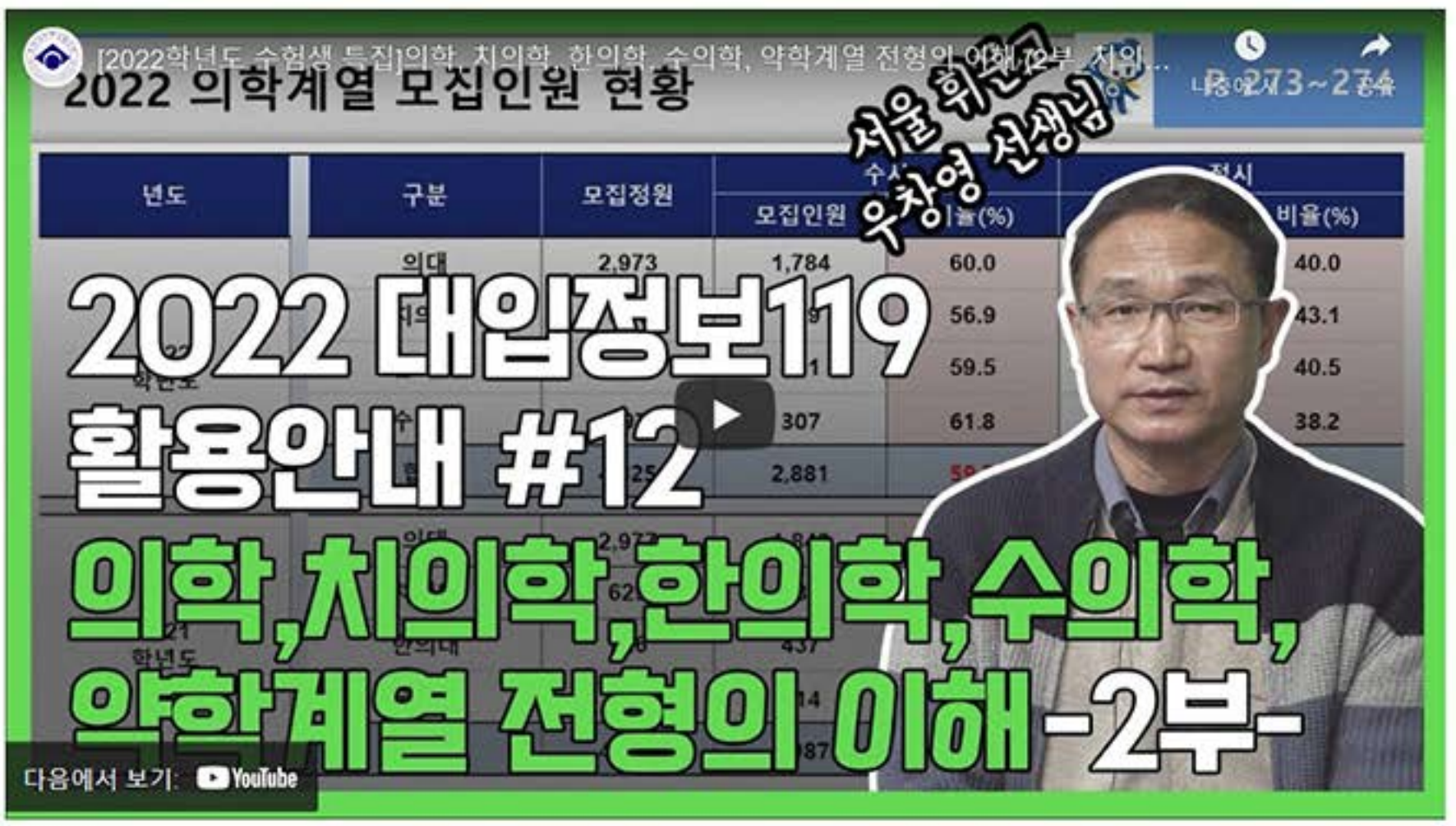
구분 / 영역		문항 수	문항유형	배점		시험 시간	출제 범위(선택과목)
				문항	전체		
국어		45	5지선다형	2, 3	100점	80분	· 공통과목 : 독서, 문학 · 선택과목(택1)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공통 75%, 선택 25% 내외
수학		30	5지선다형, 단답형	2, 3, 4	100점	100분	· 공통과목 : 수학 I , 수학 II · 선택과목(택1):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공통 75%, 선택 25% 내외 · 단답형 30% 포함
영어		45	5지선다형 (듣기 17문항)	2, 3	100점	70분	영어 I , 영어 II 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 (필수)		20	5지선다형	2, 3	50점	30분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
탐구	사회 · 과학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 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 I , 화학 I , 생명과학 I , 지구과학 I , 물리학 II , 화학 II , 생명과학 II , 지구과학 II **17개 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 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1과목 선택**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택 1 **2과목 선택** : 위 5개 과목 중 택 1 +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 /한문		과목당 30	5지선다형	1, 2	과목당 50점	과목당 40분	독일어 I , 프랑스어 I , 스페인어 I , 중국어 I , 일본어 I , 러시아어 I , 아랍어 I , 베트남어 I , 한문 I **9개 과목 중 택 1**

2022학년도 수능-EBS 연계 대상 교재 목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역	연계 대상 교재
국어	1. 〈수능특강〉 (공통) 독서, 문학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2. 〈수능완성〉 독서·문학·화법과 작문 / 독서·문학·언어와 매체
수학	1. 〈수능특강〉 (공통) 수학 I , 수학 II (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2. 〈수능완성〉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 수학 I ·수학 II ·기하
영어	1. 〈수능특강〉 영어 2. 〈수능특강〉 영어듣기 3.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4. 〈수능완성〉 영어
한국사	1. 〈수능특강〉 한국사
사회·과학탐구	1. 〈수능특강〉 17개 선택과목 2. 〈수능완성〉 17개 선택과목 ※ 17개 선택과목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 I , 화학 I , 생명과학 I , 지구과학 I , 물리학 II , 화학 II , 생명과학 II , 지구과학 II
직업탐구	1. 〈수능특강〉 6개 선택과목 2. 〈수능완성〉 6개 선택과목 ※ 6개 선택과목 : 성공적인 직업생활,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제2외국어/한문	1. 〈수능특강〉 9개 선택과목 2. 〈수능완성〉 9개 선택과목 ※ 9개 선택과목 : 독일어 I , 프랑스어 I , 스페인어 I , 중국어 I , 일본어 I , 러시아어 I , 아랍어 I , 베트남어 I , 한문 I

[어디가TV] 2022학년도 수험생 특집,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약학계열 전형의 이해



"언론·방송·매체학"

언론·방송·매체학

언론·방송·매체 분야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 학문으로서
여러 사회조직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제 형태와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여기에는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광고의 역할과 광고에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등 광고 관련 이론분야와 광고기획, 제작, 조사, 미디어 활용 등이 있다.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은지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 학생회 홍보부원으로서 학교 SNS를 관리하며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학교 홍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행을 담당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고교 3년간 홍보와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성공적인 결과까지 얻게 되면서 홍보의 재미에 빠지게 되어, 이 분야에 꽤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신문 동아리 부원으로서 무언가를 홍보하는 기사를 많이 작성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기사에 대한 독자(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보게 되었고, 이런 복합적인 경험 과정들이 '언론 홍보'라는 분야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 홍보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을 두고 비전을 꿈꾸게 되었으며, 대학에 진학하여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학과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였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방법

저는 수험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선택과 집중'을 가장 명심하고 또 명심했습니다. 저는 '수시에서 끝내자!'고 생각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시 6개 대학 중 3개는 상향으로, 2개는 적정으로, 1개는 하향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내신은 조금 부족했지만, 비교과를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5개의 학생부 종합 전형과(1~5순위 대학) 1개의 교과 전형(6순위 대학)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습 시간이 있는 2학기에는, 다른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 동안 수시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만약을 대비하여 틈틈이 수능 공부도 하였지만 80% 이상이 수시 준비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쓰기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소재 선정'입니다. 각 질문 항목에서 대학이 파악하고자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공통 질문 1번의 경우는 '학업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고, 2번은 '전공 적합성'을, 3번은 '인성'과 '사회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임을 인지하고 알맞은 소재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번 항목의 경우, 활동의 개수 선택은 본인의 자유지만, 저는 2번 항목에 적합한 소재가 꽤 많았기 때문에 3개의 활동을 기술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량은 500자, 500자, 500자로 정하여 한 활동에만 너무 많거나 적은 분량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3번 항목은 문항의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4가지 중 2가지만 딱 선택하기보다는 배려와 나눔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활동 1가지, 협력과 갈등 관리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활동 1가지 총 2가지의 활동을 선택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최대한 주어진 문항의 내용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선배들의 자기소개서 예시는 최소한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읽어본 자기소개서의 형식을 따라가고, 그 형식에만 국한되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수시에만 집중하다 보니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시간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뽑아서 제가 1학년 때부터 해온 활동에 대한 동기-과정-결과-느낀 점을 하나하나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항목을 세심하게 정리했지만, 수능과 수시를 함께 준비하는 친구의 경우라면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정리하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동기-과정-결과-느낀 점을 정리해두면 내가 한 활동이 머릿속으로 정리되고, 면접 시 활동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 동기-과정-결과-느낀 점의 범위 내로 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 선배들의 면접 후기나, 입시 커뮤니티 등의 면접 후기를 읽으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면접 질문이 나오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등 면접 스타일을 파악하고 예상 질문을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어도 지원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학교, 해당 학과에 대한 사전 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실전 모의 면접을 하면서 카메라 테스트와 피드백 시간을 가지며 면접 실전력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항상 가족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와 다른 이들이 놓쳤던 중요한 피드백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피드백을 요청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미디어, 언론정보, 영상, 광고, 홍보 등과 관련된 사회과학대학 전공이므로 국어와 영어 교과 그리고 사회탐구 교과목이 전공에 기초가 되며 적용할만한 교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공과 관련하여 추천하고 싶은 도서는 저자 시노자키 료이치의 《홍보 머리로 뛰어라.》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PR, 퍼블리시티, 광고, 홍보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었고 개념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로 저자 알 로스, 로리 로스의 《홍보 불변의 법칙》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보통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독서가 가능한 서점에서 읽곤 하였는데, 이 책은 구매하여 읽고 또 읽을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홍보 머리로 뛰어라.》는 개념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이 책은 실제 사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통한 제 미래 희망직업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론

홍보 기자를 꿈꿨기 때문에 광고, 홍보와 관련된 책 추천이 많습니다. 미디어 자체에 대한 책을 추천하자면 저자 줄리아 카제의 〈미디어 구하기〉를 추천합니다. 미디어 자체의 독립성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제 예상보다 훨씬 만족했습니다. 대학교 이전에는 대부분이 암기하고 문제 푸는 글 위주의 공부였다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이론 공부뿐만 아니라 실전을 위한 강의들도 많아서 카메라나, 영상 실력을 키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학회(영상 학회 알케미스트, 잡지 학회 하늘타리, 광고 학회 크래드)와 학술제(영화, 다큐멘터리, 뮤비, 광고, 포토에세이, 예능, 뉴스팀) 활동 등 학과 활동 활성화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선배, 후배들과 함께 영상, 광고, 잡지 등을 제작하며 실전 경험을 키워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 커리어 생성, 선배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이 인하대학교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와 유사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다양한 매체와 그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면,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는 공연, 전시, 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배우고 그 콘텐츠 속에 인문학을 담는 것, 그리고 그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보게 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것이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콘텐츠 자체와 경영방식을 배우는 것이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콘텐츠 위의 그 매체와 그리고 그 매체 산업이 어떻게 흐르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와 같은 넓은 범위를 다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졸업 후 진로는 광고·홍보, 방송·영상, 저널리즘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광고·홍보 분야의 경우에는 광고 기획자, 홍보 전문가, 기업 홍보/마케팅팀, 기업 전략 마케팅팀 등으로 진출을 하고, 방송·영상 분야는 뉴미디어/소셜 미디어 전문 기업, 방송 제작 편성, 구성 작가 등으로, 저널리즘 분야는 신문/인터넷 뉴스 기자, 저널리스트, 언론 연구원, 잡지사 등으로 진출합니다.

"식품가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가공학 분야는 인간 생활 영위에 필요한 식품과 관련하여 에너지, 영양소, 기호성, 생리활성성분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생산, 가공, 발효, 저장, 유통 전반에 관한 품질과 위생관리의 이론과 기술을 다루며, 새로운 식품소재의 개발, 식품기능성의 체계적인 해석과 신제품 개발, 전통식품의 과학화 및 식품공정의 첨단기술 개발, 식품안전 신기술,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농·수·축산가공학, 발효식품학, 식품분석학, 식품영양학, 식품생화학, 식품위생학, 식품저장학, 건강기능식품학 등이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응용시스템학부 식품공학전공 이선화

면접/논술/적성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은 우선 인터넷에 대입 관련 질문이라고 찾아보면 기초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검색한 질문을 한글파일에 옮겨 답변을 달아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내가 면접관이라면 어떤 것이 궁금할까?' 생각하며 질문을 만들고 그에 맞는 답을 채워나갔습니다. 답을 다 작성한 후에는 면접 영상을 찍었습니다. 내가 말할 때 나타나는 습관이나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 면접 영상을 찍고, 그 후에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친구와 모의 면접처럼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문장을 달달 외우면 질문을 듣지 않고 혼자 말하는 기계 같아서, 중요한 지원동기와 마지막 하고 싶은 말만 외우고 나머지는 중요한 키워드로 외우기로 했습니다. 실제 저의 첫 면접 순서가 2번째라서 긴장을 많이 하고 면접실로 들어갔는데, 아담한 교실에 교수님 두 분이 웃으면서 맞아주셔서 긴장이 조금 풀리기도 하고, 떨면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모두 했을 정도로 활동만 있으면 참가하는 열정이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면접을 보고 학생회에 들어가서 축제도 직접 기획하고, 학교 월별 소식지도 만들고, 달마다 뜻있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예를 들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의 국가 관련 십자말풀이 등입니다.). 또한 학생회에서 만든 '나눔누리'라는 봉사단체에 가입해 독거노인들께 안부 전화도 하고, 학교에서 김장하여 김치를 들고 방문하기도 하고, 가끔 댁에 찾아가 청소, 말동무를 해드렸습니다. 또 어릴 적부터 교사를 희망했던 저는 지역의 복지관에 가서 장애아동들과 비장애 아동들의 선생님이 되어 동화책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수업계획부터 진행과 정리까지 모두 도맡아 힘들기도 했지만 제가 꿈꿔왔던 교사가 되어보는 활동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도 학과를 선택하는 데 가장 도움을 준 적합했던 활동은 과학거점학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였고, 과제연구 시간에는 조원들과 주제를 정하고, 실험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실험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발표대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실험'을 주변에 있는 도구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일상생활과 과학실험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던 활동이었습니다.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식품공학과에 오고 싶은 학생이 정말 꼭 해둬야 하는 과목이 있다면 화학1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난다면 생명과학2를 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품공학과는 화학과라고 해도 될 만큼 절반 이상이 화학입니다. 화학과 생명과학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화학1과 생명과학2를 공부하고 오면 전공기초는 쉬워질 겁니다.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식품공학과는 학교에서 특성화 사업단에 선정된 학과로, 입학 전 F-cube 사업으로 미리 학과에 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취업률도 높고 인기 있는 학과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수업 시간에도 가끔 시간을 내셔서 식품 미래전망이나 직업들을 설명해주셔서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항상 사람들이 어떤 학과에 다니느냐고 물을 때 식품공학과를 다닌다고 하면 항상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식품공학과면 요리 잘하겠네?", "영양사 되는 학과야?"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피아노학과면 피아노를 잘 만드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또 식품공학과는 식품영양학과와 달리 식품의 안전성, 편리성, 기능성을 향상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영양사는 식품영양학과에 가야 딸 수 있는 면허증입니다.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앞에서 말했듯이 식품영양학과와 식품공학과는 식품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식품영양학과는 식품을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섭취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인체의 소화 과정을 이해하여 식단을 짜고 영양을 배우는 학과이고, 식품공학과는 식품의 조리과정, 가공과정, 포장과정 등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화학적 반응 등을 살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과입니다.

꼭 하고 싶은 말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작은 활동 하나하나가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모두 배움이 된 소중한 활동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1, 고2 학생이라면 활동을 하는 즉시 바로 메모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가 되면 내가 한 활동은 많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거나 한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메모해 놓은 것이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3학년 학생은 다른 친구들의 생활기록부와 비교하지 말고 원서접수를 하고 난 후에 위축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경쟁 할 상대는 옆에 같이 있는 학급 친구들이 아니라 전국의 고3 학생들입니다. 괜히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본인의 것을 보며 본인을 믿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원하는 대학을 가기를 바라며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3 학생들의 계획적인 생활을 위해

이기수 교사(상우고등학교)

어느새 6월이 지나고 있다. 이미 3, 4월의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실시했고 6월의 모의 수능이 눈에 들어와 마음에 박히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3학년 학생들로서는 점차 조급함이 생겨나는 시점일 수 있다.

고3 학생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의 생활을 계획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주요 일정이 아래와 같음을 주지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다.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주요 일정〉

8월	9월	11월		12월			
31(화)	10(금)~14(화)	18(목)	30(화)	10(금)	17(금)~20(월)	28(화)	30(목)~1.3(월)
수시 학생부 기준일	수시모집 원서접수	수능시험	정시 학생부 기준일	수능성적 통지	수시 등록 기간	수시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	정시모집 원서접수

(출처: 대교협, 「2022학년도 대입정보 119」)

먼저 계획을 어떻게 구분하여 준비할지를 학생 스스로 결정해두어야겠다. 본인이 준비하는 모집 시기 및 모집전형에 따라 시간을 구분하여 안배할 필요가 있다. 1학기와 2학기, 월별 계획까지 수시 및 정시 모집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학생의 계획은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

1. 수시모집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세부 전형 별로 요구하는 조건들을 확인하고서 그에 맞는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1학기에는 학교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거나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여야겠다.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수시 모집의 상당수 전형이 지원자의 고교 5개 학기의 성취 정도 및 추이를 살펴봄으로 3학년 1학기의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계획 및 실천이 중요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 중인 학생이라면 내신 성적과 더불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내용에도 주의를 기울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완성해야 한다. 8월 31일이 수시모집에서 대학에 제공할 학교생활기록부 기준일이다. 바꿔 말하면, 고3 학생들은 1학기 동안 학생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8월 초까지 충분히 점검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능 성적도 관리할 계획이 필요하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모두(예: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생부교과 학교추천, 학생부종합 학업우수형) 또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만(예: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 요구하는 등 대학별로 다양하다. 학생은 지원 희망 대학별 전형을 정확히 확인(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www.adiga.kr 활용을 추천)하고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수능 대비 공부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2. 정시모집의 경우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의 교과 성적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역시 교과 수업에 충실해야겠다. 수능 준비에만 모든 것을 투입하겠다고 수업 시간에 학생 본인이 선택하고 준비하는 수능 문제 풀이에만 열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진행한 수업에서 출제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부터 수능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 과목 + 선택 과목' 체제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새로운 시험 방식에 빨리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6월 모의수능 이전까지 선택 과목(국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택1,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을 결정하고 11월의 본 수능을 준비해야겠다.

지금까지 고3 학생들이 되도록 계획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간략히 나눠 보았다. 계획을 훌륭하게 구성하였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그 실행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 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뿐만이 아닌 체력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적이고 꾸준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체력 관리가 중요함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대한민국 고3 학생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 평가 기준을 통해 본인이 어떤 전형,
대학에 지원했을 때 유리할지를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

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21학번(학생부종합전형)

안녕하세요. 올해 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에 진학한 신입생입니다. COVID-19 사태 속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과정을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신의 목적지 선정하기

'목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격언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이 격언을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첫출발은 '목적지 선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진로희망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대부분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합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은 서류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면접 평가에서 자주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학 계열 - 토목공학 엔지니어 - 건설구조연구원'처럼 1학년 때에는 계열, 분야 즉, 광범위하게 기재한 후 2, 3학년에 진학하면서 진로를 구체화했습니다.

2 생기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계획 없이 쓰인 생기부는 동아리활동,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봉사활동 등 영역 간의 유기성이 떨어집니다. 하나의 주제로 활동들이 연쇄되고, 확장되어 서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 탐구가 아닌 장기적이고 심화된 탐구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입학 사정관과 교수님에게 자신의 진로가 진정성 있고 확고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보통 학기 말에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기재될 내용을 구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쫓겨 원하는 내용을 못 넣거나 전반적으로 난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저는 학기가 시작할 때 교내 홈페이지 학사일정을 통해 각종 교내 대회, 행사 등을 확인하고 모든 수업 첫 시간에 선생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평가 방식을 메모해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한 뒤 자신의 진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 각 영역에 어떤 내용을 넣어 서로 연결 지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소서 2번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폭우로 인한 침수와 건물이 밀집된 곳에서는 빌딩풍이 발생해 건물 외벽과 유리가 쉽게 파손되고, 해안가에 건설된 건물들은 너울성 파도로 인해 침수가 잦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를 고려하지 못한 건설이 인적, 물적 피해를 키우는 인재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후변화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건설 당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탐구 과정 중 세운 가설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 장마의 강도가 세졌다'였습니다. 이 가설을 세운 이유는 가설이 사실로 증명될 경우 건축의 설계와 구조 및 방식에 변화를 촉구하는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와 뉴스, 기후 토론 등을 토대로 장마와 태풍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볼 때 이상 기온이 장마의 강도를 높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이번 장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지고,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건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학년 지구과학 II 교세특)

이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대만의 필로티 건물은 한여름 폭염을 피해 보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도심의 우수 저장 탱크로 도심 침수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빗물을 지하수로 내보내는 장치를 의무로 설치하게 하는 점 등을 선정했습니다. (3학년 지구과학실험 교세특)

이와 동시에 지구온난화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시퀀싱 기술과 PCR을 이용해 해양미생물의 DNA 염기서열 분석, 유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미생물 속에 함유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로돕신을 제거한다는 아이디어를 고안했습니다. 이 탐구 활동을 하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설인'이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건축물의 수명이 길고 인간의 삶의 질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갖추어야겠다는 학습 동기도 마련하였습니다. (3학년 방과 후 수업-고급 생명과학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폭우 피해 관련 뉴스 기사를 통해 이상기후를 고려하지 못한 건설이 피해를 키운다는 생각을 하고 난 뒤 지구과학 II 과제로 '이상기후와 장기화된 폭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문헌연구를 통해 가설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피드백도 했습니다. 결론을 바탕으로 '저영향개발'이라는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을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이전에 생명과학 I, II을 미 수강했지만 방과 후 수업을 통해 부족한 경험을 채울 수 있었고 보고서 활동에서 생태학, 생물학적 시점에서 '시퀀싱 기술과 PCR'이라는 해결방안 구상했습니다.

3 수시와 정시 비중, 너무 기울어지지 말자

3학년에 들어서면 "나는 정시 파이터야! 수시 버려~", "최저 없는 수시 썼으니까 놀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한두 명씩 나타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수시 6장 다 썼고 수능 최저등급도 없겠다 부담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 9월 모평 성적 또한 그리 좋지 않아 수능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능 날짜가 다가오자 혹시 모를 수시 광탈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 선생님께서 '불안할 땐 펜을 잡아라'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가장 취약한 과목인 수학 가형만 파자는 마인드로 정시 공부 재개했습니다. 내신 시험은 부교재의 문제들을 여러 차례 풀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 암기식 공부 방식은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 모의고사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특강 문제를 2~3회 풀이하며 개념을 다잡고 수능 한 달 전까지 기출 모음집을 반복한 뒤 마지막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6월, 9월 모평 4~5등급에서 수능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한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시간은 많이 들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해 나가면서 도구를 쌓아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쌓인 도구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 방법도 도입해보고 저 방법도 도입하다 보면 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 확실한 준비가 합격의 길

대부분의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생기부와 자소서를 반복해서 읽어 어느 정도 암기했습니다. 특히 생기부에 기재되었던 보고서, 실험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이후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해보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왜 물리학 II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3학년 선택과목을 정하던 시기에 저는 우주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물리학 II 과목과 지구과학 II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려 했으나, 학교의 시스템상 과학 II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지구과학, 물리학 담당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였고, 물리학 선생님으로부터 3학년 1학기에 고급물리학 학교 간 협력 과정을 통해 물리학 II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셨기에 물리학 II를 포기하고 지구과학 2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고 면접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달달달 외웠습니다. 또, 입시 커뮤니티에 올라온 면접 후기들을 보고 과거 면접 질문들을 자신의 생기부를 토대로 대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활용법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는 진로정보, 대학/학과/전형, 성적 분석, 대입상담, 대입정보 센터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를 제공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진로를 찾고 어떤 일을 하고 관련 학과와 미래 전망까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의 전형을 확인하고 싶을 때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지금까지 발표된 대학교별 학종, 교과, 수능의 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통해 본인이 어떤 전형, 대학에 지원했을 때 유리할지를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어디가 활용의 포인트는 '성적 분석'과 '대입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분석 서비스에 자신의 내신,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여 취약한 과목이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어떤 과목에 공부 비중을 높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어디가'에 기록된 모의고사, 내신 성적과 학생부를 바탕으로 온라인 대입상담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1학년도 정시 대학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여 대학별 1 대 1 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대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 대입정보매거진을 구독하시면 대입정보를
매달 메일로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21학번(학생부종합전형)

Ⅰ. 성공적인 고등학생 생활보내기

안녕하세요. 올해 경인교육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입니다. 저는 여러 대입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경인교대를 포함한 총 5개의 교대에 합격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정하기

학생부종합전형은 비교과 항목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그 관심사를 얼마나 다양하고 깊게 공부했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타 전형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3년간의 활동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자신을 어필해야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선, 먼저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학과에 가고 싶은지 정도를 생각해보세요. '어디가'에 대학 전형과 학과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으니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어떤 대학에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어디가'를 활용해보세요.

2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노하우

제가 한 활동들은 예시일 뿐입니다. 어떤 생각과 목적으로 이 활동들을 했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기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수상

저는 교대 진학을 희망하면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교대는 모든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하므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시했습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열리는 대회라고 하면 가리지 않고 거의 다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과학 글짓기, 연극 대회, 학습 플래너 실천대회, 토론대회, 수학 경시대회, 중국어 경시대회, 음악 실기대회, 창의 논술대회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꼭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점이 많으니 자소서 소재로도 녹여낼 수 있겠죠? 최대한 많은 대회에 참가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학교 공부와 교내 대회가 주객전도되지 않도록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선에서!

동아리 및 봉사

동아리는 두 가지 동아리를 3년 내내 활동했습니다. 우선, 제 희망 학과가 초등교육과였기 때문에 교육 봉사 동아리에서 3년간 활동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 교육 봉사를 나가보기도 하고, 동아리 부원들 앞에서 모의 수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 관련 주제를 정해 장기간 조원들과 연구하여 발표하는 프로젝트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독서 및 시사 토론 동아리를 창설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빌미로 조금이라도 책을 더 읽고자 하였고, 한 가지 책 혹은 한 가지 시사 이슈라도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자 동아리를 창설했습니다. 2학년 때부턴 부원들의 진로와 관련한 시사 문제들을 다루면서 진로와 관련한 여러 딜레마 상황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고, 실제로도 면접장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은 교내봉사 포함 대략 280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봉사활동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교육이나 간호계열처럼 봉사를 중요시하는 학과는 봉사활동을 잘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을 하든 목적이 있는 봉사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있다는 말은 꾸준함과도 연결되겠죠? 목적을 갖고 하는 꾸준한 봉사활동, 그리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성장한 점이 봉사활동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접장에서 봉사활동과 관련해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해오던 음악 관련 봉사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했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는 초등학생 멘토링 봉사활동도 1년간 진행했습니다.

세특

양보다 질이 중요한 대표적인 항목이 세특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특은 본인의 학업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단순히 '수업 태도가 좋다'와 같은 상투적인 문구로 양을 채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제게 세특을 잘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딱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기'입니다. 그 이유는 세특을 기록해주시는 분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선생님이라면, 본인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예뻐 보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써주고 싶겠죠? 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거나, 발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리기도 더 쉬워지겠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본인이 그 과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추가적인 공부를 해봤는지 자세히 기록해주십니다. 특히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더 찾아보거나 노력한 내용, 심화 공부를 한 경험 등이 진로와 연관되어 기록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세특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소서

자소서와 관련해선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항목별로 어떤 모습(강점)을 드러내고 싶은지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소서를 처음 쓰기 시작하면 보통 생기부를 읽으면서 어떤 활동을 담아볼지 고르게 됩니다. 그럼 자소서가 자칫 활동 자랑 글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쓸지 고민하는 것보다 생기부를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강점)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어떤 문항에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교내활동 관련 문항인 자소서 2번 문항에서 '약자 배려', '성장'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동안 약자 배려를 위해 노력했던 여러 활동 중 '경계선 지능 아동'을 큰 소재로 잡고 관련 정책 제안 활동, 발표 활동을 녹여냈습니다. 또,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실제로 교육 현장을 맞닥뜨리면서 처음에는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점점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풀어 갔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왜 했는지 등은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하고, 그 속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과정, 느낀 점과 성장한 점을 위주로 써야 남들과는 차별화된 자소서가 탄생할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소서를 방학과 같은 긴 시간을 활용하여 미리 써보는 것입니다. 자소서를 작성하는 시기에는 생기부 마감하랴, 원서 작성하랴, 9월 모의고사 대비하랴 생각보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조급해질 수도 있고,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자소서는 수정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칠수록 좋아집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 쓰지 않아도 되니 시간이 될 때 편하게 한 번씩 자소서를 써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내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가 있어서 3학년이 되기 전에 전 문항을 2번 정도 써보았는데요. 덕분에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시작할 수 있었고, 실제로 3번 문항은 2학년 때 썼던 글을 살짝만 수정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부담이 적은 시기에 자소서를 미리 써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내신 성적 관리 노하우

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신의 출제자이신 선생님께서 하시는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시험을 잘 보긴 어렵겠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테니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졸릴 때, 집중이 안 될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졸리는 것과 집중력이 흩어지는 것 모두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졸린다면 내가 턱을 괴고 있진 않은지, 허리가 굽어 있진 않은지 돌아보세요. 편한 자세로 수업을 듣다 보면 몸이 노곤해지기 쉽습니다. 최대한 불편한 자세로 허리를 곳곳이 펴고 등을 의자에 붙여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보세요. 저는 수업을 듣

다가 졸릴 때는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입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스탠딩 책상에서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필기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나 쓸데없는 내용이라도 받아 적어보세요. 저는 필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깔끔하게 필기하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 잠이 깨곤 했습니다. 집중력이 흐어질 때는 질문에 대답하는 등 더욱 수업에 참여하려고 하고, 의식적으로라도 선생님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머리에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머리와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의지만 있다면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해보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저는 내신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혹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가르치듯이 설명하며 공부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논리구조를 갖추어 설명해야 하므로 까먹기 쉬운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순간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생겨도 수업을 했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아 이렇게 설명했었지' 하고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꼭 누군가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암기를 점검해야 할 때는 무조건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리로만 학습하는 것보다 말로 뱉어보면서 공부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고, 입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학습할 수 있어 효율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써보시면 완벽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 밖으로 뱉자니 정리가 안 되거나, 분명 외운 것 같은데 모르는 부분이 분명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은 꼭 그냥 넘어가지 말고 책을 보면서 다시 정리한 후 또 말로 정리해보는 과정을 반복해보세요.

③ 학교에서 하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하세요.

저는 1학년 때 성적이 2, 3학년에 비해 안 좋았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냐고 묻는다면 2학년에 올라가면서 야자를 절대 빠지지 않고 항상 학교에 남아 공부를 했다는 점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도 1학년 때엔 독서실이나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자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야자를 자주 빠졌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피곤하고 졸린 몸을 개인적으로 통제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쉬거나 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야자를 절대 빠지지 않기로 다짐했고, 놀고 있다가도, 졸리더라도 일단 종이 치면 자리에 앉아야 했기에 절대적인 공부량이 늘었습니다. 또한, 야자를 함께 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자극을 받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남아서 자습을 해야 했기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내용을 교무실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여쭤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학교에 남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잘 활용해보세요.

4 수능 성적 관리 노하우 (부제: 나만의 수능 공부법)

국어

우선 수능 국어에 나오는 기본 개념을 쌓았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 문제를 풀 때 선지로 나오는 문학 관련 용어들, 비문학 선지에 나오는 용어 등을 익혔습니다. 그 후엔 기출을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는 단순히 풀이에서 그치지 않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연도도 6, 9월 모의고사는 외우다시피 많이 분석해보시고, 이외의 최근 기출도 꼼꼼히 여러 번 분석해보세

요.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와 패턴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수능은 EBS 연계 교재를 꽁꽁히 풀고 여러 번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 다들 아시겠죠? 처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꾸준히 분석하고 패턴을 찾으셔서 익숙해지면 시간은 자연스레 줄어들 겁니다.

수학

수학을 단지 유형에 따른 풀이법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완벽하게 본인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들은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출제되므로 개념을 단단히 다지면서 생각의 재료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문제들을 다 풀고 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으므로 그 시간을 이용해 이 개념 저 개념 다양하게 시도해보면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개념의 비중이 크지만, 개념만으론 1등급에 도달할 수 없기에 기출문제를 풀며 경향을 익히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다면 역대 킬러 문제들을 모아 풀어보는 것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어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단어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어 외우는 걸 소홀히 하게 되는데 단어를 모르면 해석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단어는 꾸준히 외워주세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문제 푸는 스킬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문항 전 지문을 읽고 모든 문제를 풀기엔 시간이 부족하므로 유형별로 어떻게 독해를 해나가야 할지 터득해야 합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기 힘들다면 EBS와 같은 인터넷 강의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집 중에 유형별로 문제를 묶어놓은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사용해 하루에 한 유형씩 마스터한다는 마음으로 한 문제를 풀고, 풀 때마다 바로바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한 문제씩 풀 때마다 조금씩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피드백이라는 것은, 한 문제를 풀 때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정답을 찾게 해주는 문장이나 단어가 어디에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탐구

저는 사회탐구과목으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사탐 과목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기 + 기출 분석하기'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선지 싸움이기 때문에 겨울 방학에서 4월 중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고, 바로 기출 분석, 선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기출된 선지들을 모두 정리해서 O, X로 표시하고, X로 표기된 선지는 왜 틀렸는지 필기하면서 선지들을 익혀주세요. 사회문화는 도표, 통계문제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과목입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도표, 통계문제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보통 도표 통계문제 풀이에 많이들 노력을 기울이고, 저 또한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도표, 통계가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개념을 소홀히 해선 절대 안 됩니다. 개념을 모르면 풀이조차 할 수 없는 도표, 통계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실제로 개념을 꼬아 내어 도표 통계문제보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개념을 꼭 단단하게 다져주세요. 도표 통계문제는 많이 풀어서 스킬을 몸에 익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음 풀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꾸준히 훈련한다면 풀이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도표, 통계문제는 실제 출제 난이도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로 훈련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조금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II.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활용법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진로, 학교 및 학과, 대학별 성적분석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로 메뉴를 통해 진로 분류별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학과, 자격 등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가 정해졌다면 '어디가' 사이트 내에서 각 학교의 모집 요강, 전형 등을 모두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경쟁률은 어땠는지, 어떤 전형을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을 뽑는지 등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원서를 쓰기 전 여름 즈음이 되면 대학별 성적분석 수시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만 하시면 학교별 산출방식대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시도 수능을 본 후에 대학별 성적분석 서비스가 오픈되므로 수능성적과 필요한 자료들을 입력하시면 학교별 산출점수로 계산을 해주니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상담을 꼭 추천하고 싶은데요, 학과나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온라인 상담을 통해 비용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에서 제공하는 성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인의 성적과 봉사, 출결 정보 등을 입력해둔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입정보매거진을 구독하시면 대입정보를 매달 메일로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